

삼성전자 C랩, 지역 스타트업 이끌고 'CES 2026' 출격

광주 기업 딥센트 등 15개사 AI·로봇 등 혁신 기술 선배

지역 창업 생태계 구축 결실 '혁신상' 등 17개 수상 성과도

삼성전자가 다음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C랩 전시관'을 운영하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CES 2026에는 광주와 대구·경북지역의 스타트업 7개사가 전시에 참여할 예정이며, C랩 전시 중 역대 가장 많은 수의 지역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 오르게 됐다.

삼성전자는 삼성의 지원을 받는 'C랩' 스타트업 15개사가 다음달부터 열리는 'CES 2026'에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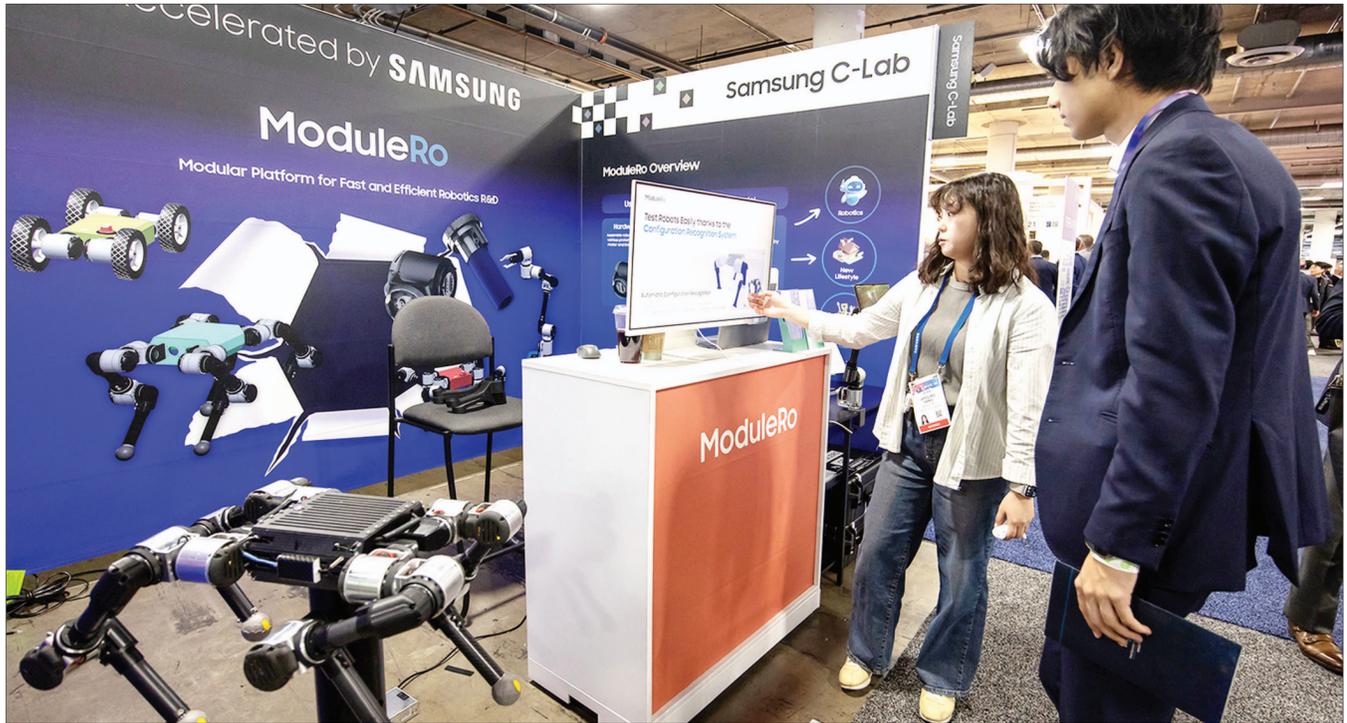
'C랩'은 삼성전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삼성전자는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C랩'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CES 2026에 'C랩 전시관'을 마련하고 15개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C랩 전시관은 라스베이거스 '베네치안 엑스포(Venetian Expo)' 내 스타트업 전시관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마련된다. C랩 스타트업들은 이곳에서 AI·로봇·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C랩 스타트업 15개사에는 삼성전자가 직접 외부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C랩 아웃사이드' 8개, 삼성전자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함께 육성한 스타트업 1개, 임직원 사내벤처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트' 2개, 삼성금융네트워크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삼성금융 C랩 아웃사이드' 4개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15개사 중 광주지역 업체인 딥센트(AI 기반 공간 맞춤형 디지털 향기 솔루션)와 오니에이아이(AI 기반 자동화 온라인 다국어 자막 및 더빙 솔루션)이 참여한다.



삼성전자가 다음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C랩 전시관'을 운영하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사진은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 당시 삼성전자 C랩 전시관 현상.

딥센트는 향기산업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후각솔루션'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으로, 개인 맞춤형 디지털 향기 서비스와 공간 향기 솔루션을 넘어 후각 기반 헬스케어까지 아우르는 다체불가한 디지털 후각솔루션 기업이다.

오니에이아이는 다양한 AI 기반 음성 신호 처리 기술을 활용해 미디어 콘텐츠 제작 도구를 통해 글로벌 콘텐츠 가속화를 위한 AI 기반 자동 자막 생성 및 자동더빙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두 스타트업은 향기산업과 오디오, 음성 신호 처리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23년부터 'C랩 아웃사이드'를 광주, 대구, 경북으로 순차 확대하며 지역의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왔다.

지역 내 창업 기업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공간, 성장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삼성전자 및 관계사와의 연결 기회 등을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 인력과 기술이 지역 안에서 자생력을 갖추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40개의 지역 스타트업이 발굴·육성돼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삼성전자의 C랩 스타트업들은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발표한 'CES 2026 혁신상'에서 2개의 최고혁신상과 15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최고혁신상을 받은 '광고슬레브'와 '스튜디오랩'은 모두 C랩 인사이트에서 출발해 스펀오프한 스타트업으로, 삼성전자 사내 벤처가 보유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도전할 수 있는 창의적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 12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인 'C랩 인사이트'를 도입했다.

또 2018년에는 사내벤처 육성 경험과 노하우를 외부로 확장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

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를 신설했다.

삼성전자는 C랩 아웃사이드를 통해 국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23년에는 'C랩 아웃사이드'를 광주, 대구, 경북지역으로 확대하며 지역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창업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며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총 599개(사내 423개, 사외 536개)의 사내벤처와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내년 총 1000곳이 넘어설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CES서 사운드 기기 신제품 라인업 공개

'더 세리프' 디자이너와 협업...사운드·디자인 조화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2026년형 사운드 기기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4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더 퍼스트룩' 행사를 통해 공개될 신제품은 뮤직 스튜디오 7·5, HW-Q990H, HW-QS90H 등이며, 강력한 음향 기술에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췄다.

와이파이 스피커 신제품 '뮤직 스튜디오 스피커' 2종은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리프'를 디자인한 프랑스 출신 가구 디자이너 에르완 부출레이가 디자인했다.

'뮤직 스튜디오 스피커'는 스피커 중앙에 오목한 '점(Dot)'이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며, 가전을 넘어 인테리어 오브제로 명성을 얻은 라이프스타일 TV '더 세리프'의 디자인 철학을 계승했다.

'더 세리프'는 알파벳 'I'를 닮은 디자인과 탈부착이 가능한 스탠드로 거실·주방·침대는 물론 선반 위 등 집안 어디에나 안정감 있게 어울리는 제품이다.

'더 세리프'가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공간의 품격을 높였듯, 에르완 부출레이의 감성이 더해진 이번 신제품 역시 단순한 스피커를 넘어선 하나의 '아트 오브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뮤직 스튜디오 7'은 전방·좌우·상단 스피커를 탑재한 3.1.1채널 공간 오디오로 3D 사운드를 자연스럽게 구현한다.

소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 삼성 '오디오랩'에서 개발한 음향 기술이 탑재됐다.

'패턴 컨트롤'은 사운드를 최적의 방향으로 조정해주는 기술이고, 'AI 다이내믹 베이스 컨트롤'은 깊고 풍부한 저음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이다.

또 최대 24비트, 96kHz의 고해상도 오디오를 지원하고, 섬세한 음악 표현을 위해 슈퍼 트루티어를 탑재해 주파수 대역을 최대 35kHz까지 확장했다.

'뮤직 스튜디오 5'는 콤팩트한 디자인과 균형 잡힌 사운드를 구현한 모델이다.

4인치 우퍼와 듀얼 트루티어를 적용해 선명하고 균형 잡힌 음질을 구현했으며, AI 다이내믹 베이스 컨트롤로 깊은 저음을 제공한다.

캐스팅 기능과 스트리밍 서비스, 음성 제어는 물론이고 SSC 코덱(Samsung Seamless Codec) 기반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해 편의성을 높였다.

2026년형 Q시리즈 사운드바는 주거 공간의 크기와 개인의 청취 환경을 분석해 최적의 사운드를 구현한다.

플래그십 모델인 'HW-Q990H'는 TV 속 대화 소리를 화면 중앙으로 끌어올려 전달하는 '사운드 엘리베이션(Sound Elevation)' 기술을 적용했다.

또 콘텐츠와 채널 간 음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오토 볼륨(Auto Volume)' 기능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청취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별도 우퍼가 필요



없는 올인원 사운드바 'HW-QS90H'는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 중시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이다.

벽걸이와 테이블 탑설치를 모두 지원하는 컨버터블핏(Convertible Fit) 디자인을 적용했으며, 내장된 자이로 센서가 설치 방향에 따라 채널 분포를 자동으로 조정한다.

2026년형 제품에서는 삼성전자가 TV에 내장된 스피커와 사운드바 스피커가 동시에 사운드를 구현하는 Q시프니 기능이 한층 진화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

광주 (주)주미당, 55억 투자유치 성공

AI 기반 푸드테크 기업...차별화된 경쟁력 인정 받아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한 AI 푸드테크 기업 주미당이 강한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투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29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주미당이 최근 Pre-시리즈A 라운드에서 총 5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주미당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푸드테크 기업으로,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제품 기획 및 생산·유통 효율화 기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소비자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접목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며 투자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Pre-시리즈A 투자에는 다수의 국내 주요 투자사가 참여했으며, AI 기반 푸드테크 시장의 확장 가능성과 주미당의 사업 모델 안정성, 실질적인 매출 성장세가 투자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미당은 GICON의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사업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AI 기반 사업 모델 고도화, 시장 검증 및 사업화 전략 수립, 투자 연계 및 네트워크 지원 등을 바탕으로 성장 기반을 다져왔으며, 이번 투자유치를 계기로 AI 기술 고도화, 전문 인력 확충, 신규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은성 기자 rozyby@gmail.com

전남정보산업진흥원, 글로벌센터 입주기업 모집

최대 5년간 입주 가능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과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 콘텐츠 생태계를 넓힌다.

29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남글로벌게이밍센터에 입주해 있던 게임기업 2개사가 오는 31일부로 입주 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글로벌게이밍센터 입주시설은 게임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입주 가능한 공간이다.

진흥원은 전남글로벌게이밍센터를 통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비롯해 회의실, 미팅룸, 휴게실, 테스트 베드실, 냉·난방 설비, 인터넷 환경 등 게임 개발·제작에 필요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공간 제공을 넘어, 전문가 자문(멘토링),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 등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i1404@gwangnam.co.kr